

# 한국 5·18소설의 장애 재현 연구

이지훈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목차

- 1 서론
- 2 몸에 새겨진 ‘정확한’ 역사
  - 2.1 목격자-되기의 수사학
  - 2.2 5·18과 고통받는 몸
- 3 5·18 역사화 기획의 명암
  - 3.1 장애 인물 표류기
  - 3.2 인간-되기의 역설
- 4 확장하는 재현 지평
  - 4.1 보상의 경계 허물기
  - 4.2 증언하는 몸-공동체
- 5 결론

## 1 서론

본 논문은 5·18을 주요하게 서사화한 한국소설들을 장애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글이다. 5·18의 소설화가 다양한 장애 인물의 형상화를 수반하며 진행되어왔음을 구명하고, 이것의 의미와 문제성을 논구하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 과제이다. 소설들이 손상(impairment)과 장애(disability) 개념을 어떻게 활용해왔는지를 검토하고, 장애 인물의 재현이 어떤 인식들에 기초해있으며 파급하는 효과는 무엇인지를 심문하는 절차가 이에 마련되었다.<sup>1</sup>

5·18을 조명하는 소설들은, 손상된 몸과 장애화(disablement)<sup>2</sup>된 삶을 그

---

1 본 논문은 손상(impairment)과 장애(disability) 개념을 장애학적 맥락에서 사용한다. 두 개념이 서로 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다는 사고가 UPIAS, 마이클 올리버(Michael Oliver) 등에 의해 확산되면서, 장애학자들은 손상을 생물학적인 것으로 장애를 사회적 인 것으로 위치시키키며 장애를 사회적 억압의 한 유형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는 “손상은 손상일 뿐이며, 특정한 억압관계 속에서만 ‘무언가 할 수 없는 상태’로서의 장애가 되는 것”(김도현, 『장애학 함께 읽기』, 그린비, 2009, 62쪽.)이라는 사실을 더욱 발전시켜, 장애를 야기하는 사회의 생산양식과 이데올로기들을 쟁점화하는, 이른바 ‘장애의 사회적 모델’(The social model of disability)의 대표적인 입각점이다. 그런데 장애학 안팎에서 두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지를 둘러싼 논의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이를테면 어떤 상태를 손상이라고 인식하고 규정하는 행위 그 자체부터 사회·문화적 해석이 개입된 것이기에, 손상 역시 담론적으로 구성된 개념이라는 주장은 다양한 논의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장애학이 포스트구조주의, 현상학, 페미니즘, 탈식민주의, 퀴어이론 등 다양한 학문 분과들과의 접점을 모색하며 그 외연을 확장해감에 따라, 손상과 장애 개념을 엄밀하게 구분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본 논문 역시 이와 같은 경향성을 따른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 ‘손상’은 5·18 경험과 결부된 몸의 변화를 일컫는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그런데 그것이 전사회적(pre-social), 전문화적(pre-cultural)인 몸의 상태를 지시하는 용어가 아님을 밝힌다.

2 장애화(disablement)란 이른바 장애와 장애인이라는 개념이 모종의 권력관계가 작동하며(재)생산되는 사실을 지시하는 동시에, 그 권력관계라는 것이 비장애인 중심으로 고안되고 구축된 규범과 사회 환경에 의해 불균형적으로(재)생산되는 과정을 총칭한다. 그리하여 삶이 장애화된다는 것은, 특정한 몸과 삶이 사회에 의해 ‘비정상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무엇을 온전히 ‘할 수 없는’(dis-ability) 상태로 규정됨에 따라 차별과 배제, 사회적 낙인을 맞닥뜨리게 되는 국면에 놓이게 됨을 일컫는다.

림으로써 5·18이 한 개인의 생애주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음을 효과적으로 지시해왔다. 이는 장애 인물의 몸과 삶을 5·18 체험의 피해와 고통을 가장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표지로 구성했기에 가능했다. 이들 소설은 대개 장애 인물을 5·18을 체험한 이후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체험한 존재로, 그리고 바로 그 까닭에 사회와 불화하는 성원으로 묘사한다. 그리하여 장애 인물의 몸과 삶은 소설이 발신하는 메시지의 중추를 담당한다. 장애 인물의 형상은 5·18이 1980년 이후 현재의 국면에까지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폭력의 경험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소설의 의도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이 같은 소설의 기획이 장애 인물들에게 고정된 역할을 부여하면서 이루어지기도 했다는 사실이다. 이때 장애 인물들은 가족 또는 사회와 유리된 채 다른 인물들과 원만한 관계를 꾸리지 못하거나, 어떤 노동도 도맡을 수 없는 존재로 형상화된다. 이처럼 5·18의 피해와 고통을 장애라는 특성과 강하게 연결시키면서 유달리 입체적이지 않은 장애 인물을 재현하는 소설의 기획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통념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비장애중심주의(ableism)는 그 대표적 예에 해당한다.

5·18의 소설화가 “완전하고 전형적인, 그리하여 본질적이고 온전한 인간상으로 일컬어지는 특정 종류의 자아와 몸(육체적 표준)을 생산하는 믿음, 절차, 실천들의 네트워크”<sup>3</sup>를 일컫는 비장애중심주의와 공명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무엇보다도 이들 소설은 5·18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피하면서 그것이 남겨놓은 윤리적 문제의 묘파를 모색하는 텍스트인 까닭이다. 즉 5·18을 서사화한 소설들은, 다양한 차이를 무화시킴으로써 장애인들 하여금 부정적 존재론을 내면화<sup>4</sup>하도록 부추기는 가장 주요한 인식틀인 비장애중심주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들 소설을 장애 인물을 중심으로 다시금 살펴본다면, 둘 사이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음이 드러난다. 5·18소설은 “몸이 어떠해야

3 Fiona Kumari Campbell, “Inciting legal fictions: Disability’s date with ontology and the ableist body of the law,” *Griffith Law Review*, Vol. 10, No. 1, 2001, p. 44.

4 이와 관련해서는, Fiona Kumari Campbell, *Contours of Ableism: The Production of Disability and Aabledness*, London: Palgrave Macmillan, 2009, pp. 3-29. 참조.

하는지 또는 몸이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문화적 규칙”<sup>5</sup>, 좁혀 말해 장애에 대한 부정적 통념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5·18을 서사화한 모든 소설이 장애 재현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한 것만은 아니었다. 몇몇 소설은 손상된 몸과 장애화된 삶의 제시와 함께 자칫 추상적 차원에 머무를 수 있는 고통을 예각화하기도 했으며, 장애 인물을 그야말로 서사의 ‘중심’인물로 위치시킴으로써 새로운 장애 재현의 윤리를 모색하기도 했다. 이에 본 논문의 작업은 5·18을 조명하는 소설들이 장애 인물의 형상을 많이 등장시키고 있음을 단순히 확인하거나, 이들을 유형별로 나누어 어떤 재현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보다는 그간 5·18의 소설화가 장애 재현과 함께 이루어져 온 경향이 농후하다면 이를 추동한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이들 소설이 어떤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를 심문하는 것에 가깝다. 요컨대 본 논문은 그간의 논의들이 유의해오지 않았던 장애라는 키워드를 쟁점화하면서, 5·18소설들에 새로운 맥락을 부여하는 것을 시도한다. 그리하여 5·18소설을 읽는 또 다른 독법을 버리는 계기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 2 몸에 새겨진 ‘정확한’ 역사

### 2.1 목격자-되기의 수사학

5·18의 소설화 과정을 장애 재현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단연 주의를 끄는 것은, 몸의 손상과 삶의 장애화를 경험한 인물들에게 ‘정확성’의 자질을 부여한 일련의 단편소설들이다. 이때 정확성이란, 5·18을 사실과 다르게 구성해 온 각종 유언비어와 소문, 그리고 일방적인 정보의 통제 아래 이루어진 왜곡과 부인의 정치가 갖출 수 없는 자질을 일컫는다. 그런데 몇몇 소설은 이와 같은 정확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에 따라, 장애 인물들에게 매우 고정된 역할만을 부여해왔다. 장애 인물들을 비장애 인물들에 의해 일방향적으로 ‘목격’되는 대상으로만, 다른 인물들과의 상호적인 관계를 구축하지 못하는 ‘타자’의 형상으로만 제시한 것이다.

---

5 로즈메리 갈런드-톰슨, 손홍일 역, 『보통이 아닌 몸: 미국 문화에서 장애는 어떻게 재현되었는가』, 그린비, 2015, 17쪽.

이를테면 백성우의 「불나방」(1990)<sup>6</sup>과 송기숙의 「제7공화국」(1988)<sup>7</sup>은, 각각 5·18 체험 이후 “반 병신”(306쪽)이 되어 끝내 죽음에 이르는 ‘형’과 “정신 이상자”(165쪽)가 된 ‘윤만’의 형상을 그린다. 이들 인물은 비장애 인물들에 의해 일찍이 죽음을 맞닥뜨린 것과 다름없는 인간으로 관찰되거나, 복잡다단할 삶의 국면들이라고는 없는 존재로 다뤄진다. 이 같은 형상화는 5·18 체험의 심각성을 공표하고자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했던 기획의 일환일 수 있지만, 이를 뒤집어 보면 기여의 측면에서만 장애 인물, 그리고 장애라는 특성이 동원된 결과이기도 하다.

정찬의 「완전한 영혼」(1992)<sup>8</sup>과 「새」(1993)<sup>9</sup>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5·18 당시 공수부대가 휘두르는 진압봉에 두개골과 달팽이관의 심각한 손상을 입은 「완전한 영혼」의 ‘장인하’는, 주변 인물들의 죄책감을 씻어내도록 추동하는 일종의 촉매 역할을 부여받는다. 이에 5·18과 결부된 삶의 다양한 역사는 거둬 누락된다. 「새」의 경우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어딘가 바보스럽고, 걸음걸이마저 이상한 불구”(232쪽), ‘박영일’의 삶과 죽음이 등장한다. ‘박영일’이 입은 손상은 5·18 당시 공수부대원 ‘김장수’의 폭력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정작 서사의 초점은 ‘박영일’이 ‘김장수’에 의해 다시금 철저한 응징의 대상으로 남게 되는 과정으로만 모아진다. 요컨대 이들 소설에서 장애 인물은 레나드 데이비스가 언급한바 그 스스로 어떤 중요성을 갖지 못하고 오로지 “비장애 인물들을 “위해” 서사 안에 배치된다.”<sup>10</sup>

문제는 더 남아 있다. 여성 인물과 남성 인물 사이의 불균형한 관계성을 골자로 한 장애 재현이 바로 그것이다. 가령 문순태의 「일어서는 땅」(1987)<sup>11</sup>, 한승

6 백성우, 「불나방」, 한승원 외, 『부활의 도시』, 인동, 1990, 297-312쪽. 이하 괄호 안에 쪽수 표기.

7 송기숙, 「제7공화국」, 『한국문학』 제16권 12호, 1988.12, 162-202쪽. 이하 괄호 안에 쪽수 표기.

8 정찬, 「완전한 영혼」, 『문학과사회』 통권 제19호, 1992 가을, 859-909쪽.

9 정찬, 「새」, 『창작과비평』 통권 82호, 1993 겨울, 227-254쪽. 이하 괄호 안에 쪽수 표기.

10 Lennard J. Davis, “Crips Strike Back: The Rise of Disability Studies,” *American Literary History*, Vol. 11, No. 3, 1999, p. 510.

11 문순태, 「일어서는 땅」, 한승원 외, 『일어서는 땅』, 인동, 1987, 17-62쪽.

원의 「당신들의 돈도가네」(1987)<sup>12</sup>, 박상우의 「1989년 겨울, 代役人間」(1991)<sup>13</sup>은 모두 5·18로 말미암아 실종되거나 죽은 아들을 좀처럼 잊지 못하는 ‘엄마’의 형상을 그린다. 세 소설은 여성 인물들의 몸과 삶을 1980년 5월 이전과 극명하게 달라졌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또 그 변화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표지로 극심한 정신적 손상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처럼 여성 인물들이 ‘정신병자’ 또는 ‘백치’와 같은 삶을 꾸리는 것으로 재현될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도 이들이 ‘아들’의 부재를 현실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의 태도를 표명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요한 동인으로 작용한다.

중요한 것은, 부재한 아들에 대한 사랑을 채 회수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여성 인물들의 우울이 장애라는 특성으로 과잉 재현된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이들의 몸과 삶은 남성 인물들의 관찰에 의해서만 제시된다. 여성 인물들이 체현하는 고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믿는 ‘남성-목격자’의 제시는, 5·18 체험으로 비롯된 비극적인 삶을 모두 여성 인물들에게 떠안기는 과정을 수반한다. 장애여성 인물이 시선의 주체 비장애남성 인물에 의해 관찰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불균형한 관계성의 한 단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세 소설은 5·18소설 재현 문법이 5·18의 심각성을 공표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발신하기 위해 ‘누구’를 필요로 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우울증과 정신적 손상이 뒤얽혀 ‘도착적’인 방식으로 모성을 표출함으로써 그 자체로 피해를 입증하는 여성 인물, 이들의 몸과 삶을 집약적으로 슬회하면서 그 실상이 무엇인지를 꿰뚫고 있는 남성 인물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이 설정을 가능케 했던 것, 문제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요소는, 다름 아닌 젠더의 구획과 함께 할당된 장애와 비장애라는 선명한 대립 구도이다. 정신이 분열된 모습으로 등장하는 여성 인물 ‘순애’를 향한 공수부대원 출신 ‘중남’의 일방적인 동일시 작업을 그리는 한승원의 「어둠꽃」(1990)<sup>14</sup>이 비판적으로 읽혀야 하는 까닭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sup>15</sup>

12 한승원, 「당신들의 돈도가네」, 위의 책, 215-244쪽.

13 박상우, 「1989년 겨울, 代役人間」,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세계사, 1991, 219-245쪽.

14 한승원, 「어둠꽃」, 한승원 외, 『부활의 도시』, 인동, 1990, 27-48쪽.

15 이와 관련해서는 김수진, 「5·18 소설의 젠더 표상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2.2 5·18과 고통받는 몸

5·18의 소설화는 무엇보다도 ‘고통’의 재현과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앞 절에서 살펴봤듯, 몇몇 소설들은 극심한 고통으로부터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인물들을 형상화함으로써 5·18 이후의 삶이 괴로움의 연속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이때 문제가 되었던 것은 고통 자체를 재현한다는 사실에 있지 않았다. 주지하다시피 소설 밖 5·18 체험자들의 고통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게 실재했고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이에 문제는 고통을 재현하는 방식, 즉 제삼자에 의해 당사자의 고통을 대신 전달하고 있는 양상과 이것이 함축하고 있는 장애 인물과 비장애 인물 사이의 불균형한 관계성에 있을 것이다.

한편 5·18 체험과 결부된 수다한 고통이 사법과 의료 영역의 언어로만 해소될 수 없음을 공표하면서도, 5·18 이후의 삶은 어떻게 도모될 수 있을지 물음을 제기하면서 ‘문학적 치유’의 가능성을 모색해온 소설들이 있었다. 이들 소설의 재현은 김명희가 논한바, “개인적이고 의학적 차원으로 환원되지 않는 사회적 원인과 과정에 의해 야기된 고통과 트라우마의 해법을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차원에서 모색하는 치유의 통합적 패러다임”<sup>16</sup>인 ‘사회적 치유’의 접근법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5·18 이후의 삶에 관심을 쏟는 공선옥의 소설들이 그 대표적 예에 해당한다. 가령 「목숨」(1992)<sup>17</sup>, 「흰달」(1993)<sup>18</sup>, 「목마른 계절」(1993)<sup>19</sup>, 「씨앗불」(1991)<sup>20</sup>과 같은 텍스트들이 있다.

예시한 네 작품은 지난한 현실에 좌초되지 않고 새로운 미래의 구축을 시도하는 인물들을 주요하게 형상화한다. 그런데 미래를 상상하는 과정엔 고통이 따르는데, 공선옥 소설은 그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물으며 이를 정면

---

47-50쪽. 참조.

**16** 김명희, 「재난의 감정정치와 추모의 사회학-감정의 의료화를 넘어 사회적 치유로」, 『감성연구』 제19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9, 147쪽.

**17** 공선옥, 「목숨」, 『창작과비평』 통권 77호, 1992 가을, 137-170쪽.

**18** 공선옥, 「흰달」, 『실천문학』 통권 32호, 1993 겨울, 186-225쪽.

**19** 공선옥, 「목마른 계절」, 『창작과비평』 통권 80호, 1993 여름, 207-229쪽.

**20** 공선옥, 「씨앗불」, 『창작과비평』 통권 74호, 1991 겨울, 161-210쪽.



으로 응시한다. 그러나 지속되는 고통의 원인을 5·18이라는 단일한 사건으로 소급시키지 않는다. 때로는 「목숨」과 「흰달」처럼 각각 ‘혜자’와 ‘순’이 경험했던 혼란한 유년 시절로 그 범위를 확장시키기도 하며, ‘위준’이 느끼는 ‘출신성분’에 대한 수치심을 여러 차례 언급하는 「씨앗불」의 경우가 보여주듯 5·18 이전부터 실재했던 고통들을 다룬다. 이를 통해 공선옥 소설은 인물들이 맞닥뜨린 다양한 고통의 국면을 삼입하면서도, 만일 그것이 5·18 체험과 결부되어 있다면 5·18 이후에도 삶이 존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짚는다. 5·18이 상기하는 고통을 청산해야 한다거나 어떻게든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당위의 차원의 메시지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지를 거듭 질문하고 있는 것이다.

5·18이 수다한 고통을 파급한 사건이었다면, 이들 소설은 그것을 집요하게 응시하면서 다양한 상상력을 제출한다. 기실 이처럼 고통을 예각화해 온 소설들의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알라이다 아스만이 지적한바, 트라우마의 언어화 과정이 “처절한 경험을 보편성과 진부함의 베일로 감”<sup>21</sup>씨는 ‘통속화’의 과정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고려해본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리하여 이들 소설은 통속화의 과정을 지양하기 위한 고투의 결과물이자, 이를 통해 고통은 5·18의 공론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바로 그 까닭에 위의 소설들은 “고통이라는 가장 철저히 사적인 경험이 공적 담론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통로”<sup>22</sup>를 제작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텍스트이다.

그런데 일레인 스캐리가 논했듯, 고통은 다른 대상과 함께 빚대어서 설명될 수밖에 없다. 즉 고통 그 자체를 정확하게 지시하는 언어는 사실상 부재하다. 이와 관련하여 스캐리는 사람들이 흔히 고통을 묘사할 때 기대는 두 가지 비유로, 고통을 일으키는 주요 기제인 ‘무기’와 고통을 표출하는 장소인 몸의 ‘손상’을 예시한 바 있다. 즉 몸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외부 요인인 무기를 명시하거나 이에 버금가는 다른 대상을 빌릴 때, 아울러 이들의 침입으로 인해 손상을 체현한 몸을

21 알라이다 아스만, 변학수·채연숙 역, 『기억의 공간: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그린비, 2011, 354쪽.

22 일레인 스캐리, 메이 역, 『고통받는 몸: 세계를 창조하기와 파괴하기』, 오월의봄, 2018, 11쪽.



제시할 때로서야 지극히 내적인 고통이 공유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23</sup> 이 같은 스케리의 지적은, 몇몇 5·18소설들이 마련하고 있는 ‘고통의 언어’를 이해함에 있어 참조할 만하다. 그리고 이때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것은, 단연 장애 인물들의 손상된 몸이다.

환언하자면, 이들 소설이 형상화하는 손상된 몸은 자칫 추상적인 차원에 머무를 수 있는 고통을 구체화시키는 장소가 된다. 가령 각각 극심한 정신적 손상을 체현한 ‘김주호’와 ‘김광서’를 형상화하고 있는 이순원의 「얼굴」(1990)<sup>24</sup>과 임철우의 「死産하는 여름」(1985)<sup>25</sup>은, 5·18 체험과 결부된 고통이 어떤 구체적 경로를 거쳐 심화되는지를 묘사한다.<sup>26</sup> 공선옥의 「씨앗불」은 그것이 적극적인 삶의 의지를 버리도록 돕는 기제로 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그리하여 이들 소설이 재현하는 고통은 ‘실물감’을 갖는다. 이를 추동하는 것은 강박을 반복하는 몸, 실제와 환상의 세계를 오가는 몸, 온갖 낙인이 교차하는 몸이다. 이들 텍스트가 장애 인물들을 ‘목격’의 대상과 ‘타자’로만 위치시켰던 앞 절의 소설들과 변별되는 지점은 바로 이 대목일 것이다.

### 3 5·18 역사화 기획의 명암

#### 3.1 장애 인물 표류기

그동안 이루어진 5·18의 소설화를 훑어볼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작품은 임철우의 『봄날』(1997-1998)<sup>27</sup>일 것이다. 『봄날』은 1980년대 중반 임철우의 단편으로부터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5·18의 소설화의 흐름 속에서 공교롭게도 같은 작가에 의해 수행된, 또는 그 주체가 누구보다도 5·18에 천착해 온 임철우였기에 시도될 수 있었던 총체화 기획의 산물이다. 한편 『봄날』은 어떤 결실의 측면에서만 의의를 갖지 않는다. 이후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될 5·18의 장편소설화 및

---

23 위의 책, 22-27쪽.

24 이순원, 「얼굴」, 『문학과사회』 통권 제11호, 1990 가을, 1046-1077쪽.

25 임철우, 「死産하는 여름」, 『외국문학』 제5호, 1985 여름, 24-95쪽.

26 두 소설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학위논문 70-73쪽.

27 임철우, 『봄날』 1-5권, 문학과지성사, 1997-1998.

총체화 작업을 예비하는 기점에 위치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이 같은 위치성을 염두에 두며 『봄날』과 이후 발간된 잇단 장편소설들을 다시금 검토할 때, 이들 소설이 거둬 장애 인물을 재현하고 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봄날』의 출간을 계기로 5·18의 소설화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은 이미 수차례 논의되어왔지만, 그 국면의 전환점에서부터 장애 인물이 등장하고 이후에도 꾸준히 재현되고 있는 사실은 좀처럼 분석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5·18의 총체적 재현의 시발점에 해당하는 『봄날』을 장애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시 읽을 필요가 있다. 이는 곧 장애여성 인물 ‘귀단’을 중심으로 『봄날』을 다시 읽는 작업과 정확히 일치한다.

기실 『봄날』은 5·18의 전모를 묘사하고자 기획된 기록물이기도 하지만, ‘귀단’을 중심으로 공전(公轉)하는 남성 가족 구성원들의 ‘아내/어머니 찾기’ 서사이기도 하다. 남성 인물들은 서사의 중요한 국면마다 ‘귀단’을 절실하게 찾는다. 이때 이들 인물이 느끼는 절실함은 무엇보다도 ‘귀단’의 현재 삶을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소설은 이들의 절실함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귀단’의 몸과 삶을 그 무엇에도 직접 응답할 수 없는 상태로, 즉 장애 인물의 그것으로 형상화한다. 바로 이 지점, 즉 ‘귀단’이 장애 인물로 설정되어 있는 까닭에, 이들 인물은 행방이 묘연한 ‘귀단’의 삶의 자장을 중앙에 둔 채 연이어 공전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귀단’은 서사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잊힌다. ‘귀단’이 서사의 진행을 추동하는 중추적인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다소 역설적이라 할 수 있는 이 같은 휘발의 과정은 어쩌면 필연적인 것이기도 하다. ‘귀단’을 공전하는 남성 인물들의 존재를 괄호에 넣으면, ‘귀단’은 스스로 그 어떤 역할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유달리 ‘귀단’만은 5·18이 한창인 1980년 5월 광주라는 시공간과 아무런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각각 5·18의 현장을 관찰하거나 이에 가담하는 남성 인물들이 어떤 ‘주체’로 도약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소설은, ‘귀단’이 5·18을 어떻게 체험하고 있는지 대해서만은 일관되게 침묵을 유지한다. 남성 인물들이 ‘귀단’을 호출하는 맥락이 구체적으로 소개되는 반면, ‘귀단’의 현재 삶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만 소략적으로 언급되는 데에 그치는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렇게 ‘귀단’은 서사에서 줄곧 소외된다. ‘귀단’은 남성 인

물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의 변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소설은 그 역의 과정을 단 한 장면도 그리지 않는다. 소설이 ‘귀단’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단 하나의 국면, 즉 ‘귀단’을 공전하는 남성 인물들이 주요한 변화를 경험하는 맥락을 서술할 때뿐이다.

바로 이 지점야말로 비록 『봄날』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총체적 재현의 성취를 달성하고 있음에도, 장애 재현과 관련해서는 기존 소설들이 취해왔던 문제적인 설정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일 것이다. ‘귀단’에게 있어서만큼은 부재한 어떤 긍정적인 전망은, 소설이 ‘귀단’을 ‘비정상적’인 몸과 삶을 체현하고 있기에 애초부터 그 가능성을 상실하고 있는 인물로 구상한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귀단’의 형상화가 소설 밖 비장애중심주의의 재생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은 『봄날』의 서사 전개에 있어 전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장애는 곧 비극이자 그것의 재현은 그다지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5·18의 재현 윤리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봄날』에게까지도 노출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비장애중심주의에 입각한 재현과 이에 대한 무관심이 5·18의 총체적 재현의 ‘성공’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쩌면 소설 재현의 장이 내포하고 있는 한계에 해당할 것이다.

### 3.2 인간-되기의 역설

장애 재현에 대한 문제의식의 부재는, 비단 『봄날』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봄날』이 장애 인물 ‘귀단’을 밑거름 삼아 5·18의 총체적 재현을 꾀한 텍스트라면, 문순태의 『그들의 새벽』(2000)<sup>28</sup>과 송기숙의 『오월의 미소』(2000)<sup>29</sup>는 각각 ‘정신박약자’ ‘월순’과 ‘미친 여자’ ‘영선’을 형상화함으로써 이와 유사한 작업을 시도한다. 두 소설이 『봄날』과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장애 인물들의 ‘죽음’이 서사의 진행에서 어떤 변곡점으로서 기능한다는 데에 있다. 5·18을 서사화하는 소설들에서 죽음은 매우 빈번하게 다뤄져 왔기에 그 자체로 새로운

---

28 문순태, 『그들의 새벽』 1-2권, 한길사, 2000.

29 송기숙, 『오월의 미소』, 창작과비평사, 2000. 이하 괄호 안에 쪽수 표기.

것은 아니다. 다만 두 소설이 제시하는 장애 인물들의 죽음은, 다분히 비장애-중심인물들을 위해서만 배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장애 인물들은 죽을 때라서야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 것인데, 이들의 죽음은 비장애-중심인물들의 의협심을 추동하는 사건이자, 화해와 용서의 당위성을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로서 제시된다. 요컨대 장애 인물들의 삶은 이들 ‘대의’에 후행한다.

이처럼 장애 인물들의 죽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소설의 재현을 뒤집어서 보자면, 이들의 삶은 좀처럼 다채롭게 형상화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봄날』이 ‘귀단’의 형상을 반드시 필요로 했지만 그 필요성이 남성 인물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계기라는 측면에서만 한정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새벽』과 『오월의 미소』의 ‘월순’과 ‘영선’의 삶 역시 특정한 수단으로만 구성된다. 두 소설이 주요하게 조명하는 삶은, 여느 ‘인간’과는 다른 ‘비정상적’인 걸 모습이거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일 뿐이다.

『그들의 새벽』의 경우 장애여성 인물 ‘월순’을 문면 곳곳에 등장시키며 중요한 인물임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만을 강조하는 절차로 수렴된다. 첫째, 5·18을 맞닥뜨리기 이전 살아 있는 ‘월순’은 ‘정신박약자’이자 강간 피해 여성이라는 사실의 집요한 강조와 함께 묘사된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개선이 요구되는 성질의 것으로 구성되며, 이를 책임지는 주체는 다름 아닌 비장애-중심인물 ‘손기동’이다. 둘째, 5·18을 맞닥뜨림에 따른 ‘월순’의 실종과 사망은 남은 서사 진행의 주요한 축을 담당한다. 공수부대에 의해 끌려간 이후 ‘월순’의 행방과 죽음에 이르는 경위를 그린 ‘월순이’라는 이름의 장(章)이, 총 32개의 장 중 유일하게 구체적인 인물의 이름으로 설정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월순’의 부재는 비장애-중심인물들의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든다는 측면에서만, 즉 이들의 ‘항쟁’ 참여의 계기라는 측면에서만 중요성이 부과될 뿐이다. 그리하여 ‘월순’은 전체 서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 역할이 오롯이 ‘손기동’과 ‘영철’로 대표되는 비장애-중심인물들을 중심으로만 맥락화된다.

『오월의 미소』는 5·18이 결코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사건임을 공표하고자 장애 인물 ‘영선’의 형상을 필요로 한 텍스트이다.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영

선'의 몸과 무고한 죽음으로 끝맺는 삶은, 바로 이 같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어야 했다. 만일 화해와 용서라는 대의의 실현을 모색하는 『오월의 미소』가 어떤 성취를 보인 소설이라면, 그 성취는 '영선'의 삶과 죽음에 어떤 '역사성'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가능했다. 5·18 당시 “곤봉에 머리를 얻어 맞아 정신이상이었다던 여자”(283쪽)라는 명명으로 간명하게 요약되는 삶과 “방 안에서 문턱 넘듯 쉽게 저세상으로”(274쪽) 향하는 것으로 처리되는 죽음은, ‘인간’의 복잡다단한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결국 『오월의 미소』가 요구했던 ‘영선’의 형상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비극을 맞닥뜨리는 한편 바로 그 까닭에 어느 인간의 모습과는 격차가 있는 성질의 것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장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설명하는 표지는, 다름 아닌 ‘영선’의 장애이다.

그리하여 『봄날』이 5·18의 소설화의 새로운 국면을 개시했고, 뒤이어 출간된 장편소설들이 5·18의 ‘역사화’ 작업을 보다 다양한 길로 이끌었다는 기존의 ‘5월 문학사’는 다시 쓰여야 할 것이다. 장애라는 특성에 ‘비정상’이라는 의미자질을 부여하면서 이를 체현한 인물들을 단일하게 포착하는 소설의 문법은 결코 변화하지 않았다. 달라진 것은 ‘장편’이라는 형식뿐이었다. 어쩌면 이 사실은 장애 재현이 단선적인 문학사적 서술로는 채 담아낼 수 없는, 보다 다양한 방향에서의 접근이 요구되는 의제임을 지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장애 재현을 부차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무관심을 고수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을 종결될 수 없는 5·18과 연결시켜 지속적인 해석의 갱신을 요청하는 사안으로 인식하는 작업일 것이다.

## 4 확장하는 재현 지평

### 4.1 보상의 경계 허물기

한편 빠뜨려선 안 될 것은, 5·18 이후의 한국사회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비장애중심주의의 인식틀을 기저에 두지 않는 소설들이 쓰였다는 사실이다. 이들 소설은 ‘지평’이라는 단어가 함의하는 어떤 전망과 가능성을 담지한다. 이때 재현의 지평은 5·18 체험의 의미를 1980년 5월 광주라는 단일한 시공간에만 한정시키지 않으며 구성함으로써, 5·18과 직접 결부된 몸의 손상과 삶의 장애화의

문제를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는 태도를 기본 입장으로 취함으로써 새롭게 열리고 확장된다. 이 모든 것은 장애 인물을 5·18 체험자들의 삶의 소외를 야기하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존재로, 나아가 그 현실을 심문하는 주체로 형상화한 소설의 기획을 통해 마련될 수 있었다. 이를테면 1990년을 기점으로 화두에 오른 이른바 ‘보상’ 절차들을 정면으로 다루면서, 국가에 의해 조성된 ‘보상국면’과 체험자들의 몸이 맺는 복잡다단한 관계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한 소설들이 있다. 채희윤의 「아들과 나무 거울」(1993)<sup>30</sup>, 이향란의 「마타모로스에서 온 편지」(1993)<sup>31</sup>, 홍희담의 「그대에게 보내는 편지」(1995)<sup>32</sup>를 두고 하는 말이다.

세 소설은 모두 5·18 체험자들의 몸에 직접 개입하는 국가 권력을 문제 삼는다. 이들 소설은 인물들의 손상된 몸, 그리고 이들 몸을 둘러싼 다양한 해석들을 서사의 중심에 위치시킨다. 유의할 것은, 세 텍스트가 인물들의 손상된 몸과 장애화된 삶을 국가가 시행하는 보상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제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체험자들의 몸과 삶이 보상금 수령 여부를 둘러싼 갈등 및 딜레마의 장소가 되고 있는 현실을 지시하는 동시에, ‘누가’ 이들을 이 같은 문제적인 상황에 맞닥뜨리도록 내몰았는지를 심문하는 작업까지 수행한다. 귀책사유는 결코 체험자들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오히려 궁극적인 책임은 이들의 몸과 삶을 끊임없는 논쟁과 다툼의 영역으로, 즉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국가에 있음을 폭로한다. 요컨대 세 소설은 국가가 보상국면을 개시함과 동시에 말소시킨 체험자들의 슬한 몸과 삶들을 복원할 뿐만 아니라, 이들 주위를 에워싼 장벽을 문제 삼고 이를 직접 허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들 소설은 장애 재현의 윤리학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각별하다. 무엇보다도 소설 내 인물들이 갖는 장애라는 특성은, 몸과 삶의 비극성을 제고하겠다는 기획에 근거하여 형상화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그것이 어떤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라, 국면의 변화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개

30 채희윤, 「아들과 나무 거울」, 『한 평 구 흙의 안식』, 민음사, 1993, 74-97쪽.

31 이향란, 「마타모로스에서 온 편지」, 임철우 외, 『포도씨앗의 사랑』, 명경, 1993, 205-238쪽.

32 홍희담, 「그대에게 보내는 편지」, 『창작과비평』 통권 88호, 1995 여름, 232-286쪽.

입될 수 있는 정치적인 사안이라는 사실을 매우 효과적으로 지시한다. 그동안 소설 재현의 장에서, 장애가 다른 어떤 상태나 자질보다도 차이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 및 상징으로 매끄럽게 제시되고 그쳤던 경향을 상기해볼 때, 그 차이가 어떤 맥락에서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호명하는 이들 소설은 큰 의의를 갖는다. 그리고 맥락의 중심에 5·18 체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상국면을 위치시키는 전략은, 비단 국가를 ‘문제’를 추동하는 단일한 적(敵)으로 호명하는 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소설들이 그리는 보상금 수령을 둘러싼 가족 구성원 사이의 갈등은, 5·18 체험이 야기한 몸의 손상을 중심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판가름하는 다양한 해석들이 복합적으로 교차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를 통해 이들 소설은 손상과 장애 두 개념 모두 담론적 구성물이라는 사실을 언명하는 동시에, 이 담론을 구성하는 인식들과 제도를 검토할 때로서야 손상된 몸과 장애화된 삶이 갖는 구체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아울러 성원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몸과 건강을 국가로부터 확인받아야 ‘온전한’ 성원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하는 오늘날의 현실을 환기하는 동시에, 이 같은 관리 및 통제 정책의 실상과 그 이면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다른 아닌 5·18의 보상국면이었다는 주요한 사실까지를 짚는다. 그리하여 세 소설은 5·18뿐만 아니라 ‘몸’과 ‘국가’의 관계라는 더욱 폭넓은 주제 아래 다시금 새롭게 읽힐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마련하고 있다.

## 4.2 증언하는 몸-공동체

앞 절에서 살펴본 텍스트들이 손상된 몸과 장애화된 삶의 문제를 보상국면이라는 특수한 시공간과 함께 조명하며 장애 재현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었다면, 류양선의 『이 사람은 누구인가』(1989)<sup>33</sup>와 공선옥의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2013)<sup>34</sup>는 그것을 장애 인물들이 수행하는 ‘증언’을 초점화함으로써 피하기도 했다. 해당 절은 두 소설이 장애 인물의 발화를 통해 기입하는 5·18 체험

33 류양선, 『이 사람은 누구인가』, 현암사, 1989.

34 공선옥,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 창비, 2013. 이하 괄호 안에 쪽수 표기.



에 대한 증언이, 소설 내 다른 비장애 인물들의 적극적인 응답을 자원 삼아 이루어지고 있음에 중점을 둔다. 이는 곧 그동안 많이 논의되어 온 증언의 (불)가능성이라는 문제를, 소설 내 인물들이 구축하는 ‘관계성’을 중심으로 새롭게 검토하는 작업과도 같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는 자신을 ‘불구자’라고 정체화하면서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과 행동을 일삼는 ‘한빈’과 그 주변 인물들의 관계를 주요하게 그린다. 그런데 이처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한빈’의 발화는, 주변 인물들에게 어떤 잘못이나 해결이 시급한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 동시에 5·18에 대한 증언으로 확장된다. 장애 재현의 새로운 지평을 개시하는 소설의 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다. 무엇보다도 ‘정상’이라는 규범과 ‘일상’이라는 시공간으로부터 끊임없이 이탈하는 장애 인물 ‘한빈’의 몸과 삶은, 생성적인 힘과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갖는다. “어떤 사실이 더 이상 규범을 참조할 필요가 없을 때 그 규범의 권위는 박탈”<sup>35</sup>된다는 조르주 카길렘의 지적처럼,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한빈’의 몸과 삶, 그리고 그의 발화는 기존의 질서에 긴장을 유발한다. ‘한빈’의 흔적이 지속적으로 다른 인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은, 비단 이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창출하는 것만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보다는 이들 인물에게 규범화된 현재 삶의 양식에 대한 성찰과 각성을 요청하는 ‘한빈’의 발화에 대한 응답에 해당할 것이다.

그리하여 ‘한빈’의 ‘불구상태’는 여느 소설들이 형상화하는 것처럼 비극의 은유로서만, 시각적으로 다르다는 측면에서만 관심을 끄는 대상에 갇히지 않는다. 규범화된 몸과 삶의 질서로 포섭할 수 없는 장애 인물 ‘한빈’은, 치열한 고투의 과정을 스스로 이행하는 동시에, 규범에 벗어나 있는 것 그 자체로 주변의 인물들에게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주체가 된다. 요컨대 이들 과정이 5·18의 증언이라는 새로운 발화양식까지 창출해낼 수 있으며, 그것이 신뢰와 우정에 기반한 공동체의 응답이 뒷받침되었을 때 파급력이 배가된다는 사실까지 함께 제시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는, 새로운 장애 재현의 윤리학을 고안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장애 재현의 윤리는, 단순히 사회의 규범과 일정한 거리를 둔 채 기존

---

35 조르주 카길렘, 여인석 역,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 그린비, 2018, 167쪽.

질서를 거부하는 장애 인물의 형상화를 통해 곧바로 마련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처럼 ‘저항’의 국면만을 강조하는 재현 문법은 장애 인물의 삶을 단선적으로 구성함에 따라, 장애 인물을 자칫 심오하고 신비스러운 존재로만 한정하여 제시하는 결과를 낳을 위험이 있다. 그리하여 장애는 “체현된 존재로서의 형상과 관련하여 모든 것을 설명하거나, 아무것도 설명하지”<sup>36</sup> 못할 수 있다. 이는 곧 장애 재현의 윤리는 장애 인물이 기존의 규범과 질서에 저항하는 국면뿐만 아니라, 이들과 맺는 복합적인 관계의 제시가 있을 때로서야 비로소 구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측면에서 ‘불구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며 삶의 주체로 도약해나가면서도 이전 일상으로의 ‘회복’을 욕망하기도 하고, 몸의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한빈’의 형상을 그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는, 윤리의 형성 과정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윤리 형성의 연장선을 그리고 있는 대표적인 소설이 바로 공선옥의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이다.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는 장애 인물 ‘정애’가 경험하는 일련의 수난을 조망함으로써 장애 재현의 새로운 문법을 모색한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지점은, 소설이 유년 시절과 5·18을 지나 그 이후에도 슬한 폭력에 노출되었던 ‘정애’가 삶을 개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노래라는 발화양식으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정애’의 언어를 온전히 수신하는 오랜 친구 ‘묘자’의 우정으로부터 싹튼다.

‘정애’의 노래가 사건의 심각성을 공표하는 일종의 증언으로 기능할 수 있으려면, 이를 수신하고 나아가 노래에 담긴 메시지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수신자의 존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소설이 ‘정애’의 삶을 좀처럼 수난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이와 같은 ‘노래들’을 수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소설 밖 현실을 환기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러나 소설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만일 극심한 정신적 손상을 체현한 ‘정애’의 몸과 삶을 이해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으로 간주하지 않고 ‘정애’의 호출에 화답하는 ‘묘자’와 같은 존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다는 메시지

---

36 David T. Mitchell and Sharon L. Snyder, *Narrative Prosthesis: Disability and the Dependencies of Discourse*,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0, p. 50.

를 발신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장애 재현의 윤리 형성과 관련하여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가 이루고 있는 성취는 바로 이 지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는 5·18이 남겨놓은 문제들에 대한 쉬운 해결을 거부한다. 5·18 ‘시민군’ 출신 ‘박용재’가 ‘묘자’에 의해 죽음에 이르는 것으로 제시되는 것은, 5·18을 직접 체험했고 이것이 삶의 많은 고통을 수반했다는 사실이 이후의 모든 언행이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님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소설은 “난리 난 뒤끝에는 미친년, 미친놈 생기게 마련”(114쪽)이라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이들 몸과 삶에 대한 주변의 관심임을 말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의 ‘주인공’은 ‘정애’와 ‘박용재’를 모두 돌보는 ‘묘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묘자’ 역시 결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고 누군가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인간’이라는 점에서, ‘정애’의 존재는 간과될 수 없다. 서로의 응답을 자원 삼아 삶을 이어나가는 ‘정애’와 ‘묘자’의 형상을 제시함으로써 미래의 삶의 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을 제안하는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는,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지 않는다.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 있을 뿐이다. 이 같은 만남의 폭이 더욱 확장된다면, 다양한 몸과 삶의 양태가 더이상 ‘문제’로서 공유되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가 구축될 수 있으리라는 것. 이것이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가 발신하는 메시지이다.

## 5 결론

본 논문은 5·18의 소설화가 장애 인물의 형상화와 함께 이루어져왔다는 사실을 구명하고, 이것의 의미와 문제성을 논구해보고자 했다. 장애 인물은 5·18 당시의 일들을 문학적으로 증언하는 동시에, 그것이 결코 종결된 사건이 아님을 강조하고자 했던 소설의 기획 아래 일정한 역할을 부여받아왔다. 5·18 체험이 남긴 피해와 고통을 효과적으로 묘사하고, 5·18의 심각성을 공표한다는 측면에서도 서사 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 논문은 이 같은 소설의 기획이 5·18의 진실에 가닿기 위한 적극적인 응답이었음을 고려하면서도, 이들 재현이 어떤 인식틀을 기틀 삼아 이루어졌는지를 심문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5·18소설들을 주제로 한 그간의 논의들이 장애 인물들을 5·18의 비극성을 환기시키는 일종의 장

치로서만 분석해왔다면, 본 논문은 이들이 텍스트 안팎으로 파급하는 다양한 효과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했다. 이는 곧 많은 소설이 장애 인물에게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역할을 부여하며 5·18을 다뤘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이들 인물을 중심으로 전체 서사를 재독하는 작업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작업을 위해 새롭게 마련해야 할 해석의 틀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장애학임을 힘주어 말하고자 했다.

## 참고문헌

### 기본자료

- 공선옥, 「씨앗불」, 『창작과비평』 통권 74호, 1991 겨울, 161-210쪽.  
\_\_\_\_\_, 「목숨」, 『창작과비평』 통권 77호, 1992 가을, 137-170쪽.  
\_\_\_\_\_, 「목마른 계절」, 『창작과비평』 통권 80호, 1993 여름, 207-229쪽.  
\_\_\_\_\_, 「흰달」, 『실천문학』 통권 32호, 1993 겨울, 186-225쪽.  
\_\_\_\_\_,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 창비, 2013.
- 류양선, 『이 사람은 누구인가』, 현암사, 1989.
- 문순태, 「일어서는 땅」, 한승원 외, 『일어서는 땅』, 인동, 1987, 17-62쪽.  
\_\_\_\_\_, 『그들의 새벽』 1-2권, 한길사, 2000.
- 박상우, 「1989년 겨울, 代役人間」,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세계사, 1991, 219-245쪽.
- 백성우, 「불나방」, 한승원 외, 『부활의 도시』, 인동, 1990, 297-312쪽.
- 송기숙, 「제7공화국」, 『한국문학』 제16권 12호, 1988.12, 162-202쪽.  
\_\_\_\_\_, 『오월의 미소』, 창작과비평사, 2000.
- 이순원, 「얼굴」, 『문학과사회』 통권 제11호, 1990 가을, 1046-1077쪽.
- 이향란, 「마타모로스에서 온 편지」, 임철우 외, 『포도씨앗의 사랑』, 명경, 1993, 205-238쪽.
- 임철우, 「死産하는 여름」, 『외국문학』 제5호, 1985 여름, 24-95쪽.  
\_\_\_\_\_, 『봄날』 1-5권, 문학과지성사, 1997-1998.
- 정찬, 「완전한 영혼」, 『문학과사회』 통권 제19호, 1992 가을, 859-909쪽.

\_\_\_\_, 「새」, 『창작과비평』 통권 82호, 1993 겨울, 227-254쪽.

채희윤, 「아들과 나무 거울」, 『한 평 구 흡의 안식』, 민음사, 1993, 74-97쪽.

한승원, 「당신들의 몬도가네」, 한승원 외, 『일어서는 땅』, 인동, 1987, 215-244쪽.

\_\_\_\_\_, 「어둠꽃」, 한승원 외, 『부활의 도시』, 인동, 1990, 27-48쪽.

홍희담, 「그대에게 보내는 편지」, 『창작과비평』 통권 88호, 1995 여름, 232-286쪽.

### 단행본

김도현, 『장애학 함께 읽기』, 그린비, 2009.

알라이다 아스만, 변학수·채연숙 역, 『기억의 공간: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그린비, 2011.

일레인 스캐리, 메이 역, 『고통받는 몸: 세계를 창조하기와 파괴하기』, 오월의봄, 2018.

조르주 칸길렘, 여인석 역,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 그린비, 2018.

로즈메리 갈런드-톰슨, 손홍일 역, 『보통이 아닌 몸: 미국 문화에서 장애는 어떻게 재현되었는가』, 그린비, 2015.

David T. Mitchell and Sharon L. Snyder, *Narrative Prosthesis: Disability and the Dependencies of Discourse*,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0.

Fiona Kumari Campbell, *Contours of Ableism: The Production of Disability and Aabledness*, London: Palgrave Macmillan, 2009.

### 논문

김명희, 「재난의 감정정치와 추모의 사회학-감정의 의료화를 넘어 사회적 치유로」, 『감성연구』 제19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9, 145-178쪽.

김수진, 「5·18 소설의 젠더 표상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1-101쪽.

Fiona Kumari Campbell, "Inciting legal fictions: Disability's date with on-

tology and the ableist body of the law,” *Griffith Law Review*, Vol. 10, No. 1, 2001. pp.42-62

Lennard J. Davis, “Crips Strike Back: The Rise of Disability Studies,” *American Literary History*, Vol. 11, No. 3. 1999, pp.500-512.